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2024. 12. 19.[목] 김현국 국장 010-2581-2487 / 김대경 보좌관(민병덕 의원실) 02-784-9540,  
이철호 보좌관(김남근 의원실) 010-8268-2752

책임의원	택배	염태영 의원	주영훈 비서관	010-9059-1793
	물류센터	이용우 의원	최지용 보좌관	010-8266-5429
		박홍배 의원	김형균 보좌관	010-2696-1122
	배달앱	이강일 의원	강지형 선임비서관	010-3130-8531
	이커머스	송재봉 의원	신석우 선임비서관	010-7616-5736
	사회적책임	박희승 의원	이백휴 보좌관	010-7139-6627

## 〈을지로~~위원회~~ 쿠팡 택배기사·물류노동자·지역업자 권익개선을 위해 힘 모은다〉

- ‘을지로~~위원회~~ 쿠팡 사장단 회의’, 배달앱 수수료, 연속야간노동 문제해결 위한 사회적대화 시작하기로
- 택배 배송구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과로사 유발 비판받은 ‘즉시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 폐지
- 쿠팡 비판한 언론인·시민단체·노조 고소 취하 및 쿠팡 셀러에 대한 빠른정산제도 확대
- 을지로위, 쿠팡의 사회적 책임 경영 전환에 대한 의지 높이 평가, 연내 민생단체와 상생협약 체결하고 내년 초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키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19일(목) 08:00 쿠팡 사장단과 쿠팡의 입점자영업자, 외식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민·민생단체들이 을지로 위원회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TF' 소속 책임의원(박주민, 김남근, 이강일, 이용우, 염태영, 박희승, 송재봉, 김태선)과 박대준 공동대표(쿠팡), 정종철 대표(쿠팡 CFS), 홍용준 대표(쿠팡 CLS), 김명규 대표(쿠팡이츠)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1차 사장단 간담회에서 합의한 내용(연속야간노동 문제해결 위한 사회적 대화 참여) 외에 추가적인 합의내용을 발표하였다.

먼저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기존 정부 주도의 배달 앱 상생협의체에서 발표한 상생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의 요구를 을지로위원회가 쿠팡에 전달하였고, 쿠팡이츠는 소상공인들의 지급여력과 경영위기 등을 공감하며 수수료 부담완화 및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쿠팡이츠는 △배달라이더 안전운임료,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배달라이더 안전을 위한 악천후 배송 제한 등 배달라이더의 처우개선 및 안전배달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쿠팡CLS와 영업점간의 계약서는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택배 배송구역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하며, 과로사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은 '적정 배송구역 협의조항(클렌징)'을 통한 즉시 계약해지는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용 불안정과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경우 택배기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쿠팡도 함께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배송구역 조정 시에 적용되는 미수행률, 회수율, 고객불만 발생률, 파손율 기준과 계약 갱신 시 활용할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타 택배사에 비해 과도하지 않게 마련하고, 배송인력 미확보에 따른 배송차질 등 계약위반이 장기간 발생한 경우에만 배송구역을 협의·조정하기로 했다.

셋째 제1차 쿠팡 사장단 간담회에서 합의한 언론인 두 명과 택배노조 간부 두 명에 대한 고소 취하를 완료하였다. 쿠팡은 향후에도 노조, 자영업단체 등 시민사회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과도한 정산기간에 대한 지적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 '빠른 정산 서비스'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빠른 정산 서비스'는 전날 구매 확정된 판매자 정산대금의 90%를 익일 오전 10시에 정산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오픈마켓 셀러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였으나, 이를 판매자로켓(로켓그로스\*)와 법인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판매자가 쿠팡의 물류시스템을 이용하여 빠른 배송을 하는 서비스  
쿠팡은 빠른 정산 서비스가 소상공인 셀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다시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대준 쿠팡 각자대표는 “시민사회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겠다” 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쿠팡TF 소속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쿠팡의 사회적 책임 경영 전환에 대한 의지 높이를 평가하였다. 다만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쿠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 영업점과의 배송구역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 △ 즉시 계약해지 관련 클렌징 조항 폐지, △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등 기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민생단체들과 함께 연내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년 초에는 배달앱과 야간/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개선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2024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첨부1. 2차 을지로위원회-쿠팡 사장단 간담회 사진



